

에너지도 경관도 Green 해야

조계종 환경위, '문화유적지 적용가능성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입 타당성 조사' 발표

친환경적이면서도 사용료가 낮은 신재생 에너지는 사찰 관계자들의 주요 관심사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도입에 대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 사찰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찰 관계자들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사찰 경관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와 환경위원회는 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유적지(사찰) 적용가능성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입 타당성 조사'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를 주관한 한국태양에너지학회는 사찰 경관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체험·간접 교육이 가능한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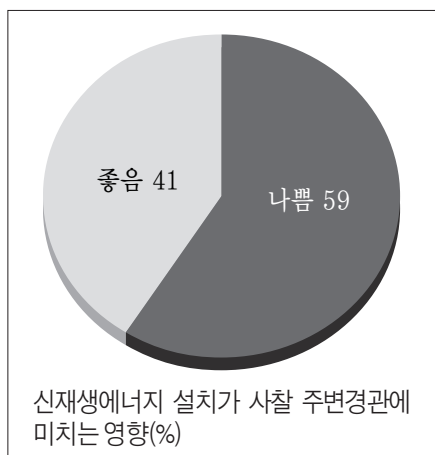
연구진은 현장답사를 통해 사찰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와 사찰 관계자들의 견해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2010년 8월 16~20일까지 조계사 외 10개 사찰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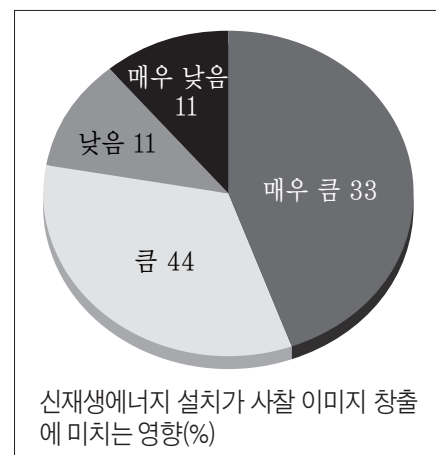
그러나 사찰 관계자들은 신재생 에너지가 사찰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경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설치가 사찰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59%의 응답자가 '나쁘다'라고 답했고, 41%의 응답자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관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찰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유흥공간이나 신진축 예정부지, 주차장 등 사찰 외부 공간 활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사찰별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 제시됐다. 그러나 사찰들 대부분이 산중에 위치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



리드 시스템'이 제안됐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수익 창출을 위한 풍력, 대수력 시스템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했다.

이 밖에도 월정사와 범어사는 계통 연계형 태양광-소수력 하이브리드 시스템 도입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전력 사용 절감효과와 친환경 이미지 제고가 기대된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장 장명 스님은 "사찰들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검증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실정에 맞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심준환 산림과학원 박사는 "에너지 효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관광객, 인근에 분포된 동물들의 상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찰을 위한 에너지 조달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마곡사, 송광사 '태양광-소수력' 발전 유리 직지사는 화목 보일러 활용 바이오매스 제안

대부분 '태양광-소수력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집중됐다.

사찰별 활용 가능한 시스템 제시

마곡사와 직지사, 송광사는 지리적으로 산과 계곡을 끼고 있어 태양열과 자연 계곡의 수량이 풍부하다. 이런 특징을 고려해 이들 사찰에는 '태양광-소수력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제안됐다.

직지사는 기존 화목 보일러를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지열 이용기술 등을 함께 사용해 사찰 내 에너지 공급을 분산시키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또 직지사 만덕전 후면에 위치한 보일러실 인근 공간을 활용한 '목질계 바이오매스 시스템'도 가능하다고 밝

주차장 등 외부 유흥공간 설치 선호

조사 결과 '신재생 에너지 적용이 이미지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77%(매우 큰 33%, 큰 44%)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또 70% 가량이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도 81%가 긍정적

다양한 에너지원 사용하나 전력 사용 심각

조사 사찰 중 대부분이 지리·지형적 특성상 수급이 용이한 전력 의존 비율이 93%로 (일반전력 46%, 심야전력 47%)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찰들이 일부 박물관이나 요사체 등에 태양광 및 지열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의 일부만을 대체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렀다.

연구팀은 에너지원별 에너지 사용량 단위를 동일한 단위인 kcal로 환산 후 월별 에너지 사용량 및 비율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조계사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비율이 도시가스(49%), 전력(40%), 등유(8%), LPG(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용요금 비율에서는

전력(48%)이 가장 높게 나타나 효율이 낮은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봉은사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비율에서 등유(37%)의 비율이 높았다. 뒤이어 도시가스(34%), 전력(28%), LPG(1%)순으로 나타났다. 금산사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비율에서 전력(74%)의 사용량이 월등히 높았다. 그 다음으로 등유(22%), LPG(4%)의 순서로 조사됐다.

직지사도 연간 에너지 사용량 비율에서 전력(61%)의 사용량이 가장 많았으며 등유는 28%, LPG는 11%였다. 그러나 직지사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력 사용요금을 낮추기 위해 심야전력을 사용

하고 있었다. 봉암사는 70%이상의 에너지를 전력에 의존하고 있고, 등유는 23%, LPG는 7% 수준이다. 봉암사 역시 심야전력을 사용하고 있어, 전력 사용량 비율에 비해 요금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범어사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비율에서 전력과 기타 에너지원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력 사용비율은 54%, 등유 37%, LPG 9%로 각각 조사됐다. 통도사는 전력 보다는 등유의 사용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통도사의 에너지원별 연간 사용량 비율은 등유 64%, 전력 33%, LPG 3% 순이었다.

마곡사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에서 전력이 57%, 등유 39%, LPG 4%의 분포

를 보였다. 선운사는 전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사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였다. 선운사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비율은 전력 92%, 등유 4%, LPG 3.5% 순으로 조사됐다. 단가가 낮은 심야 전력의 사용으로 전력의 사용요금을 사용 비율보다는 낮추고 있었다. 그러나 등유나 LPG는 단가가 높아 사용량 비율에 비해 요금 비율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송광사는 등유의 사용 비율이 높았다. 연간 에너지 사용 비율에서 등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55%였으며 나머지 에너지 중 전력이 39%, LPG가 6%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 뉴스

대구 대성사 금강불교대학 졸업식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도산) 금강불교대학은 3월 10일 대성사 서원당에서 제 6회 졸업식과 제8회 입학식을 병행했다.

이날 제6회 졸업식 및 제8회 입학식에서는 보통과정 66명과 고급과정 56명이 졸업했고, 경전반 46명도 이수했다. 또 보통과정 신입학생 150명이 새몸통 입학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구 대각사 '나눔의 집' 열어

대구 대각사(주지 법산)는 3월 1일부터 매주 수, 토요일 무료급식처인 나눔의 집을 열었다.

대각사는 2010년 5월 개원해 불교명상대학, 108성지순례단을 운영해왔다.(053) 656-5108

손문철 대구지사장

3·1정신 계승 결의대회

삼일정신구국운동 범국민연합(총재 김동환)은 2월 28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3·1정신을 앞두고 삼일정신 계승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영천 총효사 해공 스님, 한국불교연합회장 지산 스님 등 불교계와 천주교, 개신교계, 관련 단체 관계자 800여 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천 은해사 조사전 기공식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2월 28일 조사전과 템플스테이 교육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해철국사와 고경 법전 대종사, 동곡 일타 대종사의 진영을 모시는 조사전은 오는 7월 준공되며, 템플스테이 교육관은 1000명 이상이 동시에 법회를 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돼 2012년 2월 개관할 예정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대원불교조계종 신년하례법회

양산 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는 2월 18일 중정 청봉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중정 청봉 스님은 법어로 "어떤 상황에서든 주인이 되는 것이 곧 부처"라며 당당히 수행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 남부지사장 청운 스님

불심사 춘계 수행정진 큰스님 초청 법회

대구 수성구 불심사(주지 정혜)가 춘계수행정진 큰스님 초청 대법회를 3월 12~20일까지 병행한다. 이번 초청법회 천수천안관자재보살 점안식에는 영월큰스님이 법주로 참석한다. 초청 법사로는 단양방곡사 회주 묘허 큰스님, 김천직지사 주지 성용 큰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053) 795-1108

천진명 기자

영천 고운사 육조단경 강연

영천 고운사(주지 호성)는 2월 21~25일 고운사 선체현관에서 각성 스님의 육조단경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는 16교구 말사스님과 전국 선방 스님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영애 영주국장

대체의학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신화 같은 기적의 체험을 공개합니다

나 삼봉(三奉) 김영생(金永生) 승(僧)은 조부님 강요에 13세부터 육경신정신수련에 입신해서 81세가 된 오늘까지 병고없이 살다가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정신수련을 하면서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아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달래주는 낙으로 사는 노승입니다. 저는 46세때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이면서도 1977년 음력 1월 15일 경신 수련중에 천신으로부터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건강이 회복되어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천신의 메시지는 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될 때 원인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 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영능선사를 양성해서 천문을 열어주고 은(銀) 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먹이면 병고에서 살아난다 하시며 은용해기 만드는 법까지 가르쳐 주셔서 많은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면서 두통환자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전립선이상자 요실금으로 불편해 하시는 분들께 1주일에 한번씩 3,4회 기를 넣어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되고 내장기능에 이상이 있어 사경을 헤매는 환자에게는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100일씩 복용시켰더니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고계신 암환자가 100여명이 넘는데 너무도 신기해서 나 혼자 흥분하면서 이것이 대체의학이야 라고 함성을 지르는 순간 천신의 메시지를 받았습니. 구제역 조류인플렌자 싸스병은 은용해수 농도를 조금 높여서 육각수로 만들어 뿌리고 먹이면 일순간에 소멸될 터인데 너무도 안타깝구나 하시기에 너무도 반가워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대례 3배를 올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실에 전화하고 동물방역담당관실에 전화해서 실험해 봐달라고 호소도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실에도 전화하고 은이 650여종의 균이나 바이러스를 6분내에 살균된다는 세계 박사님들의 실험논문을 발췌해서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님 친전에 속달등기로 보냈는데도 전화 한통도 없습니다. 구제역 뉴스를 보면서 안타깝다 못해 분통이 터질것 같습니다. 이 노승은 30년간 체험해 왔습니. 아무리 심한 독감에도 은용해수를 육각수로 만들어 서너잔 마

시고 나면 편안해지고 알려지 비염이나 축농증에는 1일 2회씩 코속에 몇일간만 넣어주면 편안해지고 아토피성 소양증에는 먹고 바르면 개운해지고 류마치성 관절염은 2달안에 거뜨해지고 세균성하리는 1잔만 먹고나면 멈추는 걸 수백명에게 체험해 봤습니. 대학병원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손발이 터질듯이 부어있는 분에게 은용해수를 3일간 복용시켰더니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부기가 빠지고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승이 이 세상에 알리고 싶은 대체의학입니다. 여러분 암은 균만 없어도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암을 진단 받으신 분들은 불안해 마시고 천의선도 수련을 하면서 은용해수를 당신이 직접 만들어 100일간만 드신 다음 제 진찰을 받아 보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안할 분이 한분도 없을것입니다. 사찰에서 부처님앞에 은용해기 1대면 놓아두면 불자님들 건강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육각수를 만드는 비법은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환신을 받은 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은용해기 1대 가격은 35만원인데 200명이 1달 먹을 수 있는 은용해수를 만들 수 있으며 은봉만 갈아 끼우면 무한정 쓸수 있습니다. 은이 유익하게 사용되는 사례와 세계박사님들의 입증내용을 보실려면 http://02-2216-6278kti114net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천의선도 태종선사 삼봉 김영생 스님 합장 배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천의선도 본원
연락처 010-4933-4528

